

## 개발과 환경정책



송국범

개발은 중요한 것이다. 개발은 발전의 상징이다.

개발의 속도와 개발된 상황을 보고 그 고장과 그 나라의

부의 척도를 가늠하기도 한다.

또한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선 개발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개발을 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방법에서 이의가 제기될 뿐이다... 또한 개발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부의 축적을 하고자 하는 인간 욕심의 발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멈출 수 없는 당위인지도 모른다.

좁은 농로를 넓히고 포장하고 여기저기 공장이 건립되고 좁은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고 산을 파헤쳐 공장을 세우고 여기저기서 가능만 하면 바다를 막아 육지로 만들고 그곳에 거대한 공장을 짓고 어마어마한 산을 무너뜨려 그곳에 골프장을 세우는 등...

그동안의 각종 개발은 엄청난 변화와 편리함과 성장의 상징물로 표현되며 무작

정 허가하여 계획없이 진행되어 온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다보니 개발만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개발이 가져다준 그 장점 못지않게 단점 또한 엄청나게 많음을 깨닫기 시작한 우리들은 환경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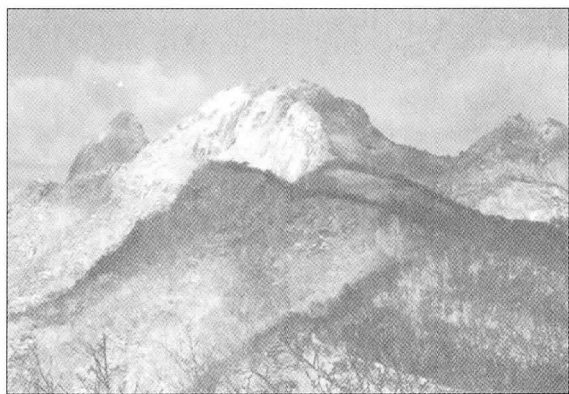
환경을 보호하자는 생각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대다수 수많은 사람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을 때 의식있는 환경 운동가들이 이 문제점을 거론하며 폐해를 건의했지만 그 누구도 여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외로운 운동을 하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개발과 성장이라는 명분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엄청난 천혜의 자연이 맥없이 무너졌고 다시는 그 좋은 환경을 볼 수 없게 된 곳이 부지기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몇 백년, 몇 천년을 내다보며 치밀한 계획하에 개발에 임할 시기가 온 것을 알아야 된다.

개발을 끊임없이 해나가되 어떻게 하면 자연환경을 살려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모습 그대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를 깊이 생각하며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은 환경보호보다 개발에 더 역점을 두어 개발 쪽으로 결정을 내렸지만 이제부터는 개발에 우선을



두기보다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나는 지난 추석 명절에 고향을 다녀오면서 몹시도 가슴 아픈 경험을 하였다.

우리 고향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대둔산이 있다. 초·중학교 다닐 때 봄, 가을 소풍을 단골로 다녔던 그 대둔산은 우리 마을에서 보면 그 웅대하고 장엄한 자태가 우리를 얼마나 포근하게 해 주었는지 모른다. 그 산 언저리에 골프장 허가난 것이다.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보면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이 소수의 특권층 사람들이 즐기는 터전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필 왜 저 아름다운 곳에 골프장을 허가해 줬을까 분노가 치밀었다.

그 과정에서 과격하게 반대하는 내 친구 하나는 유치장 신세도 졌다는 얘기도 들었다.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같은 노력을 다한 행정관료와 회사측이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여 파헤쳐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책임하게 허가해준 행정당국을 무참히 욕해 주었다.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할 때다.

그런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엄청난 환경 파괴로 해서 후회할 날이 곧 오고야 말리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마을에서 환경보호와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확산시키는 운동을 펼쳐나가자.

개발의 결정 과정에는 꼭 환경전문가를 참여시켜 그 전문가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는 풍토 위에서 결정을 내리자. 한번 파괴되면 좀처럼 회복키 어려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발벗고 나서자. 늦었지만 지금이 적기이다.

〈충남서산 팔봉중학교 교감. 본회 태안지부회원〉